

남성숙 칼럼



본사 부회장

아빠찬스 채용비리를 끊으려면

저 하나의 관행처럼 벌어져 정해놓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사실상 위에서 내려 보내면서 마치고 나서 엄정하게 검증한 것처럼 포장한다. 이런 위선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정성이란 개념과 도덕적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마찬가지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5급 이상 고위직이 자녀들을 채용한 것이다. 경력직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결재권자도 있다. 심지어 이들 간부 대부분은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족이 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규도 지키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신고내역 조사를 업으로 하는 그들의 직무 특성상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남들에게 엄격하면서 자신들 내부 문제에는 한 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가 작동한 것이다

심지어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때 해당 간부의 일부 동료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면접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거나, 경력직 임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까지 하면서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선관위의 인력채용비리는 가히 충격적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이유는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독립적 지위로 외부 감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내부 구성원들 사이 잘못에 눈감거나 관행으로 묵인해 온 문화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고,

불법 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심지어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도 있다. 그러나 보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을 선호한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채용비리도 다양하다. 금융공공기관, SOC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을 가릴 것 없이 채용과 관련된 구설수와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수시로 감사하거나 전수조사해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과 위법으로 취업한 사례를 속출해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발굴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근본적 해결은 공공기관을 시장경쟁에 노출시키고 정치권과 관료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출 때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고용체제를 당연시함으로써 바람직 한 노사관계 성립 훼손과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습인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도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모든 채용은 공개 채용 원칙 하에 지원서 접수와 처리과정이 더욱 고도화된 시스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공정한 채용이 공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일 또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직장인 공공기관의 취업문은 좁디좁은데 그나마 채용비리로 정치인등 영향력있는 이들의 자녀들이 쉽게 채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얼마전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크고 작은 잘못이 2234건이나 드러났다. 그 비리의 유형과 사례도 다양하다. 기관장이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경우, 면접위원 다수를 응시자와 같은 사적모임 회원으로 구성한 경우,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자녀를 채용한 경우, 채용 공고를 일부 기관 홈페이지에만 공개한 뒤 전직 임원이 추천·알선한 사람을 채용한 경우, 서류 전형 합격자 수를 2~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해 특정인을 채용한 경우, 경쟁자 경력 점수를 낮추거나 가점을 주지 않고 점수를 조작한 경우,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채용한 경우, 면접위원 아닌 사람이 면접장에 들어가 면접 대상자 2명 중 1명에게만 질문을 던져 이에 답한 응시자만 합격시킨 경우 등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채용비리가 종합백화점 같이 망라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갖는 문제의 심각성은 채용비리 그 자체보다도 채용비리가 그

社說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에 쓰러지는 광주 청년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한 둘이 아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열악한 고용 상황에서 취업이 쉽지 않은데다 실사 일자리를 얻었다 해도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는 부담한 현실이다.

국세통계포털(TASIS)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액 정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광주지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건수는 1천772건, 액수는 20억8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34.9%, 335.3%나 폭증했다. 미정리 체납은 1년 전에 비해 14.5% 상승한 1천142건, 금액은 19.5% 급등한 15억8000만원에 이른다.

앞으로 개선은 불투명하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용 환경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20대 청년 고용률은 50.4%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49.1%)에 이어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60.4%)과는 10%p 격차다. 대학교 졸업 이상 취업자 수도 25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1만3천명(-4.8%)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임

금 수준도 하위권이다. 상용근로자 월평균 328만4천506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320만2천101원)에 이어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371만7천328원이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 규모가 4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생활비 부담 등 사유로 못 갚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취업은 물론 창업도 만만찮은 가운데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다. 학자금 이자를 낮추거나 실질·이직 등의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지역 전략산업 유치에 더욱 전력해야 한다.

결국, 고용 여건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큰 숙제다. 빚이 빚을 부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광주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남도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돌봄 관리 최선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1인 가구가 27만4천108가구로 전체의 35.1%(77만7천358가구)를 차지했다. 홀로사는 어르신 이 노인 인구의 25.3%다. 사회문제가 된 고독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전남도가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분야에선 발굴 시스템 강화,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운영,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는 개별 부서에서 추진 중인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확대,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등과 연계, 관리에 힘쓴다.

2021년 4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5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빠르게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독자적으로 각 읍·면·동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1천909명에 대해 1대1 전담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2차례 더 진행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며 2024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시범 공모사업에 2개 시·군이 참여해 선정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을 일컫는다. 위기가구를 신속히 적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지부가 처음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도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20% 감소(2021년 1.06명→2027년 0.85명)를 목표로 수립했다.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고독사는 3천378명, 하루 평균 93명 꼴이다. 전체 인구의 3%인 152만5천명이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남도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사랑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고독사 없는 전남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킴이단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폭폭 찌는 여름철 폭염 이 다가오고 있다. 주변과 단절된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내야 한다. 지역사회 연계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고



윤은상

前 광주교역연수원 총무부장

두분 스승과 함께 떠난 모교 방문

기가 가득한 봄의 흔적들을 여유롭게 즐겨 봤다. 예쁘게 핀 꽃처럼 나의 인생도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곤 했다. 봄의 향기에 취해 학창 시절로 돌아가 '스승의 노래', 가곡 '고향의 노래', 동요 '질레꽃'을 부르니 두분 스승님은 무척 흐뭇해하셨다.

우리 일행은 오후 1시계 강진군 사초리 선창식당에 도착해 점심 식사를 한 후,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지락을 채취하는 주민들과 마량항에서 고금도까지 연결되는 연륙교와 다도해를 바라보면서 심신을 맑게 할 수 있었다. 가던 길목에 용일 삼사리 부락을 방문한데 이어 방산에 들러 거대한 장교봉 고분을 관람했다.

그리고 김 선생님과 동기동창이었던 한 지인을 만났다. 84세이지만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강건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 나왔다. 특유의 화법으로 이어진 긍정의 에너지가 필자에게도 전염되는 기분이었다. 지난해에도 봤지만, 여전히 강건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노후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 부부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탓으로 돈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아낀 비용을 인근 마을에 50만원씩 기부한다고 했다. 또 아껴 모아 둔 돈은 며느리나, 예쁜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주면서 가족 간의 친밀도를 쌓아간다고 자랑했다. 그는 장례비용 외에는 한 푼도 남김없이 사용하고 미련없이

떠나고 싶다는 바람도 말했다.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부인과 함께 맛집을 찾아 전국 방방을 누비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니 부부 금실도 쌓아가고 있다고 했다. 성경 말씀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다"고 했듯이 받는 것보다 주어 누리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작별인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북일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60년 전에 봉직하셨던 학교라 두 분의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다. 교문 뒤에 있는 송림은 옛 모습 그대로이나 학교의 환경은 많이도 변했다. 당시에는 1천여명 이상의 학생 수에 교직원들의 숫자도 많았으나 이제는 저출산과 노령화 등으로 인해 겨우 학교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선생님께서도 고향과 모교를 다녀오게 돼 무척 행복해 하셨고 집에 귀가한 후 고맙다는 문자를 필자에게 보내왔다. 행복해 하시는 스승님을 보니 더불어 행복했다. 두 분 스승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학식과 덕망이 높아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다. 지성의 거점이었고, 지역사회의 지도자의 역할까지 하셨다. 참된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제자들은 가르쳤다.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사랑의 회초리를 잡으셨다. 이에 우리는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올곧게 성장해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필자는 매년 스승의 날이면 항상 동심에 남아 있는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조촐하게나마 식사를 해 왔다. 그분들은 벌써 84세가 됐다. 인기 많았던 젊고 왕성했던 시절이 옛 그제였는데 머슴고 흘러버린 세월이 아슬하 기만 했다. 두 분은 해남 북일초교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평생지기가 되셨다고 한다. 이에 필자는 올해도 그분들의 초임지였던 해남 북일까지 드라이브하면서 5월의 싱그러움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우리는 차 안에서 학창시절과 건강·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김장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웅변과 주산을 가르치면서 국가관을 심어주셨기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학생부장을 10년 이상 역임하신터라, 엄하지만 따뜻한 정이 많고 올곧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고향 가는 길가에도 아카시아꽃, 찔레꽃이 여기저기에 만발해 그 향기가 진동하며 코끝을 간지럽히고 있다. 우리는 꽃들의 향

독자투고

완도해양경찰서는 양질의 대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1년 3월 닥터경비합정 제도를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노화도에 구조저점파출소 구급직별을 배치, 구급역량 강화로 보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내 발생한 응급환자 사례분석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전문의의 검수를 통해 완도서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 지침서를 자체 제작하여 응급대처 능력을 높여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경 응급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응급의료서비스 예산의 문제이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절실하다

해경청과 소방청은 해상과 육지 차이 외에 응급환자 구조, 응급처치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나 소방청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로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해경청은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훈령'으로 미비한 법적 근거와 적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구급인력과 의료장비 및 의료품 보급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완도해경은 적은 예산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완도군)와 협업체하여 응급 의료물품을 지원 받아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로 개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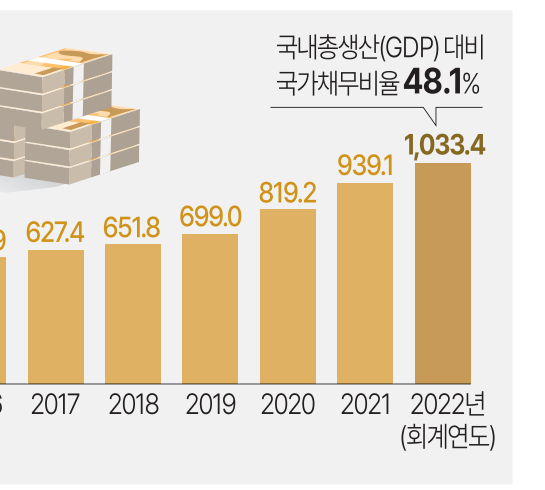
또한 해경과 소방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지역 어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도서지역 특성상 육지보다 오래 걸리는 이송시간에 대비해 주민 자체 응급처치 방법을 습득시켜 도서지역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爲民獻身 海警本分'(위민헌신 해경본분) 국민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하는 것이 해경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기정·완도해양경찰서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감사원, 정부 결산 검사보고서 국회 제출...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

감사원은 정부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확정 한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총 1천33조4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120조2천억원, 2021년에 전년 대비 119조9천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작년 증가 폭은 9조3천억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데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82조6천억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에 16조3천억원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p) 높아졌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천억원(62.1%),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301조3천억원(37.9%)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 573조9천억원, 세출 550조7천억원은 기재부 집계와 감사원 계산이 일치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 확인된 오류 수정 후국유재산은 1천302조2천억원, 물품은 15조2천억원이었으며 채권은 469조8천억원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